

48세 천명훈, 러닝 동호회서 플러팅 "나중에 같이 달리기 한 번"

등록 2026.06.02 10:53:13



[서울=뉴시스] 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채널A '신랑수업2'에서는 이정진이 양평에 사는 천명훈을 찾아가 함께 러닝 훈련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사진=채널A)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천명훈이 러닝 동호회에서 기습 플러팅에 나선다.

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채널A '신랑수업2'에서는 배우 이정진이 양평에 사는 천명훈을 찾아가 함께 러닝 훈련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이정진은 러닝복 차림으로 양평에 등장한다. 그는 "원래 작품에 들어가기 전 체중 관리를 위해 러닝을 하는 편이다. 하프 마라톤도 두 번 뛰었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송해나는 "저도 매일 5km는 무조건 뛰고, 탄력 받았다 싶으면 10km까지 달린다"고 밝힌다.

서준영도 "여의도 한 바퀴 뛰는 걸 '고구마런'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정확히 12km가 되더라"고 말한다.

반면 이승철은 "난 뛰면 심장에 안 좋다고 해서"라고 했고, 탁재훈은 "러닝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어울릴 때 오직 뛰는 용도로만 즐겼다"고 말해 웃음을 안긴다.

이후 천명훈을 만난 이정진은 러닝 대회 출전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2013년부터 '대한장애인유도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선수들의 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단체로 러닝 대회에 나가기로 했다. 30명의 장애인 선수들과 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오늘 연습하러 나왔다"고 밝힌다.

천명훈은 "너무 좋은 취지다"라며 양평 러닝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훈련하자고 제안한다.

이정진과 천명훈은 이후 러닝 동호회 회원들을 만난다. 이때 천명훈은 한 여성 회원에게 "실례지만 어디 사시냐? 나중에 같이 달리기 한 번"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